

2025 년 6 월 15 일 (아버지의 날 주일 설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버지

시편 112:1-9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2 편을 보시면 복있는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v.1)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경외’와 ‘두려움’은 그 결이 좀 다른 단어같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왜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로 존경, 명예, 또 그 안에서 나오는 떨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차원의 성격이 아니라, 그분의 압도적인 위엄과 사랑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떨림으로 반응되어져 나오는 차원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설 때, 혹은 별이 쏟아질것만 같은 밤하늘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경험되는 압도적인 그 힘 속에 우리의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우리의

심장이 쿵쿵 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경외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편 112 편에서 나오는 사람이 의롭고 또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같이 주님을 경외하는데서 그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선함에 우리의 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건강일수도 있고, 직장일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수도 있고, 실패일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찌냐는 두려움일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거의 **200** 번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8 장 13 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0 장 28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입니다. 마치 사자가 다른 짐승을 몰아내듯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의 pie in the sky 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재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지금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각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보는가?**

**그래서 내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수 있는가?**

엣그제 금요일 찬양의 밤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신 그렉 웨스트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 (Z) 들은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보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나 또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부모들이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가치에 따라 키우는지,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 정말 어떤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을 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되고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일례로, 제 딸 주은이가 처음으로 7 미터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린 그 장면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경험이 있으시지요? 처음으로 높은데서 뛰어내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엄청 무서워했을겁니다.

주은이도 정말 무서워했어요. 다이빙대 끝에 섰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 갔다가 뒤로 물러나기를 몇번 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참지못해서 주은이한테 이랬지요. “주은아, 그냥 다음에 해도돼.” 그런데도 주은이가 버티는거예요. 무섭긴 한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How was it?” 그러자 딸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저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발을 빼고 싶을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싶은 때가 있는 것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풍랑 위를 걸어갔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배 밖으로 뛰어 내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은,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내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구나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있는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주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언뜻보면, **두려움과 즐거움**—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두 단어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안에 가득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번째 문답에서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혹은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 신앙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자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문앞까지 나와서 여러분을 반기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같이 하는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또는 이런 예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거예요. 제일 첫마디가 오늘 방청소 다했어요. 오늘 해야할꺼 다했어요. 혹시나 혼나지는 않을까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 일들은 잘 하니까 별로 잔소리할꺼 없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진실로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기도를해도, 그냥 해야 할 일 체크하듯 하시는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서 하시는건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읽으시는지 아니면 밀린 통독을 따라잡기 위해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시는줄 믿습니다.

시편 112 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 15:5)

바울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시편 112 편 2 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2 절부터 9 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으므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 장 24 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구요.

사도행전 4 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2 편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 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 112 편에서 말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1 장에서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시편 112 편에서 말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 장에서는, 마가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12 편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니 실제로, 바나바는 시편 112 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본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아갑시다”라고 마칠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나바처럼 되라”가 아니지요. “더 의롭게 되기 위해 열심히 살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사 53:5).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시편 112 편이 말하는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흔들림 없고, 관대하며, 영원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포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삼위 일체 속에 깊은 사랑과 경외심 속에서 하나가 되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미래 세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셨지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하면 안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만지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부서지고, 깨어진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눅 23:46)

그렇기에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도 의로운 자로 회복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광받고,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로마서 3:22 참고).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전한 주인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4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 놓고...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게 나아오지만... 내가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하느냐? (3-4 절 요약)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워두진 않았는가? 드러나지 않은 죄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겔 14:6).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적인 회개, 전적인 돌이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마치 주은이가 다이빙 대에서 처음 뛰어내리기 전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 뭘까 말까 왔다갔다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온전히 다 내려놓을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 포기할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수 있을까?

지금도 의심과 두려움에 뭘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시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과감히 배밖으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과감히 뛰어내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잔치가 열릴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넘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의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 나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줄 믿습니다.

왜냐면, 주님을 믿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관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버지께 드리는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성공도, 보호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멋진 아버지들 혹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업적을 이루는 아버지가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들, 더 철저히 그리스도께 행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아버지들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아버지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왜냐면, 내 아버지를 보면 그것을 믿지 않을수가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 단순히 이 날을 축하하고 맛있는 식사하는 날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기도로 고백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되시길,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